

6학년이 1학년 혀 절단

‘학교폭력’ 심각 “돈내놓아라” 마구 때린뒤 부모에 못알리게

96. 3. 8

경기 포천경찰서는 7일 하급생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구타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혀를 자른 혐의(상해 등)로 광아무개(13·0중1)군을 입건해 조사중이다.

경찰에 따르면 광군은 0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해 7월19일 오후 2시께 후배 임아무개(10·5년)군과 함께 같은 학교 1학년 이아무개(8)군을 학교 화장실로 끌고 간 뒤 “왜 돈을 가져오지 않느냐”며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.

광군 등은 이어 강제로 이군의

혀를 잡아 당긴 뒤 “부모에게 알리면 죽이겠다”며 문구용 가위로 혀를 1cm 가량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.

이군은 이후 보복이 두려워 포천읍 홍외과(원장 홍건식)에서 2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7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아오면서도 이 사실을 숨겨오다 지난 4일 이를 안 어머니 장아무개(38)씨가 경찰에 신고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.

이와 관련해 이군을 치료한 홍건식 원장은 “수술 뒤 별다른 장

애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신적인 충격은 클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포천/권기식 기자